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2021년 1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출진흥과 과 장 김재형(044-201-2171), 사무관 장다은(2172) / 제공일: 1월 13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올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

- 농식품부장관 주재, 농식품 수출업계 화상 간담회 개최(1.13)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일시/방법 : '21. 1. 13.(수) 10:00~11:30 / 영상회의
- ◆ 주요 참석자
 - (농식품부) 장관, 식품산업정책실장, 식품산업정책관, 수출진흥과장, 원예경영과장
 - (관계부처) 농진청(차장, 수출농업지원과장), 산림청(차장, 임업통상팀장)
 - (업계) 신선·가공식품 수출업체, 수출통합조직, 관련 협회 등
 - * 삼양식품(면류), 샘표식품(장류), 대상(김치), 한국인삼공사(인삼), 싱그린FS(닭고기), 딸기·포도 수출통합조직, 한국쌀가공식품협회, 한국식품산업협회
 - (유관기관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, 아마존코리아
- ◆ 주요내용 : '20년 수출성과 공유, '21년 수출확대 방안 등 논의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2021. 1. 13.(수)에 김현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, 수출 농가·업계,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대면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.7% 증가한 75.7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농식품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, 올해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.

* '20년 농식품 연간 수출액(잠정) : 75.7억불(전년대비 7.7% 증가)

** 주요 품목 수출액 : 김치(144.5백만불, 37.6%↑), 고추장(50.9, 35.2%↑), 쌀가공식품(137.6, 26.7%↑), 라면(603.6, 29.3%↑), 유자차(50.8, 31.9%↑), 포도(31.2, 32.5%↑) 등

- 간담회에는 딸기·포도·김치·인삼 등 신선농산물 및 라면·장류·닭고기·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 주요 수출업체와, 농진청·산림청,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 부처·기관이 참석하였다.
 - 특히,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(아마존코리아)이 참석하여,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·소비 시장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.
- 이 날 간담회에서는, 지난해 수출 확대를 견인한 주요품목의 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며, 올해 수출 확대 의지를 다졌다.
 - 대표적인 성과사례를 살펴보면, 딸기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횟수 감소 등에 대응하여 대한항공과 업무협약(MOU) 체결을 통해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용기를 운행하였고,
 - * '20.12월~21.4월 동안 주 4회 운송, 12월 한달 간 딸기 전용기를 통해 161.4톤 수출
 - 포도는 보관상자 개선, 예냉처리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저장기간을 연장(4→6개월)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등 물류 애로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였다.
 - 김치는 김치 양념(시즈닝), 김치 음료 등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, 인삼은 면역력을 강조한 마케팅에 집중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,
 - 장류·라면 등 가공식품은, 마케팅 방식을 비대면으로 신속히 전환해 온라인몰 입점·판매를 대폭 늘리고, 현지 대형유통매장 등 주류시장을 적극 공략한 성과를 공유했다.

□ 참석자들은 온라인 판매채널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,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이 해외 대형 온라인몰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.

* 예) '20.11월에 중국 티몰에 개설한 '한국식품관'을 동남아 쇼피 등으로 확대

○ 아울러, 수출국의 식품시장 동향, 통관기준, 라벨링 규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하였다.

□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2021년 수출지원 업무 추진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농식품 유통·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, 금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.

□ 이를 위해,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정례화하고 온라인몰 연계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·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고,

○ 급변하는 수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, 통관 거부 사례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대상국가와 건수를 확대하고 국가별 소비 트렌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계 각국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 건강·기능성 연구 및 홍보를 통해 김치·인삼·장류 등 전통 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, 작년에 해외수요가 증가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적극적인 온라인·모바일 연계 홍보를 통해 소비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하였다.

○ 아울러, 신남방·신북방 같은 유망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·호주·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우리 농식품의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.

- 김현수 장관은 또한 “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좋은 실적을 낸 것은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”라고 강조하면서,
- “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, 올해에도 우리 농식품 수출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,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참고

2020년 농림축산식품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

(단위 : 백만불, %)

| 구 분 | 2019 | 2020 | 증감률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전체 | 7,025.7 | 7,567.1 | 7.7 |
| 인삼류 | 210.3 | 229.8 | 9.3 |
| 김 치 | 105.0 | 144.5 | 37.6 |
| 파프리카 | 91.5 | 86.4 | △5.5 |
| 채소종자 | 56.0 | 57.3 | 2.4 |
| 딸 기 | 54.4 | 53.8 | △1.2 |
| 토마토 | 17.5 | 15.7 | △10.1 |
| 배 | 83.3 | 71.7 | △13.9 |
| 유자차 | 38.5 | 50.8 | 31.9 |
| 포 도 | 23.5 | 31.2 | 32.5 |
| 단 감 | 8.3 | 9.4 | 12.4 |
| 사 과 | 7.0 | 5.9 | △15.5 |
| 감 껍 | 2.9 | 6.0 | 104.5 |
| 닭고기 | 61.5 | 75.7 | 23.2 |
| 라 면 | 467.0 | 603.6 | 29.3 |
| 쌀가공식품 | 108.4 | 137.6 | 26.7 |
| 고추장 | 37.7 | 50.9 | 35.2 |
| 커피조제품 | 270.3 | 274.2 | 1.5 |
| 설 탕 | 119.8 | 138.1 | 15.3 |

* 본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, 연간 통계확정시 (2021.2월)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